

## 제주사회의 변동에 따른 주택특징에 관한 연구 -1945년부터 1960년대 주택을 중심으로-

김태일\*·김호선\*\*·박철민\*\*\*

### 요 약

해방후의 제주는 고난의 시간들이었다. 4·3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있었고, 6·25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종전 후에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한편으로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 아래 시행된 타의적 추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제주인의 삶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과거의 전통적인 초가나 와가 형태의 주택과는 달리 보다 근대화된 건축재료가 유입되었고, 건축형태에 있어서도 합석 재료의 경사지붕이나 평슬라브 지붕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종합개발계획 등에 의하여 1960년대 말부터 철근콘크리트가 들어오면서 주거형태는 크게 바뀌어 가게 되었다.

본 논문은 잊혀진 시기, 공백의 시기이기도 한 1945년 이후부터 1960년대 사이에 제주지역의 근대화라는 사회적 변동 속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혹은 일시적으로 건축되었던 주택을 포함한 주거양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관련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건축의 사회적 배경과 건축 형태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이후, 등장한 주택들의 대부분은 역사적 사건들에 의하여

\*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노력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생주택과 4·3 원주민 복귀주택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주택들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주택이었으며, 주택의 형태와 재료들은 현대적인 주택이었으나, 평면구조를 보면 나름대로 제주의 실정에 맞게 건축된 것들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들 주택에 대한 다양한 자료수집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주택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존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I. 서론

주거는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인 산물인 동시에 인간생활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 및 생활양식 등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진다.

제주지역의 주거건축에 있어서도 모든 다른 건축물에 있어서처럼 제주도의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오면서 변화되어 왔다.

1945년 해방이후의 제주는 1946년 행정자치구역인 道로 승격되었다. 이후 50년대까지는 예산의 취약, 행정기구의 미비, 좌·우파의 대립, 4·3사건의 발발, 4·3사건에 따른 이재민과 6·25사변으로 제주도로 피난 온 난민들과 매년 연이은 흉작으로 인해 사회 혼란이 계속 되었다.

본격적인 제주의 근대화는 1961년 5·16군사정권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의 개발은 5·16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제주도에 최초로 아스팔트 도로가 건설되고, 간이 상수도가 설치되었으며, 이것은 1970년대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제주개발을 두고 물

의 혁명, 길의 혁명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였다.

## II. 연구목적

제주지역에서의 1950년대와 1960년대는 혼란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근대화로 이행해 가는 변혁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다양한 주택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4·3사건, 6·25사변과 같은 큰 사회변동 이후의 주거건축의 변화에 관한 조사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관련자료도 미비하거나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주거건축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나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잊혀진 시기, 공백의 시기이기도 한 1945년 이후부터 1960년대 사이에 제주지역의 근대화라는 사회적 변동 속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혹은 일시적으로 건축되었던 주택을 포함한 주거양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관련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건축의 사회적 배경과 건축 형태적 특징 파악에 연구의 목적을 둔 기초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5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주택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또한 그 당시 기록들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여서 자료 정리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장연구의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다. 문헌연구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가장 사실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언론기관의 신문자료와 행정기관의 간행물을 중심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각 시대별 사회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주택에 대해

그 당시의 제주도의 간행물「제주도」, 신문, 대한주택공사 관련자료 등을 통한 기초적인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장연구는 문화인류학에 근원을 둔 문화기술학의 방법으로 현존하는 건축물에 대한 실측 조사와 현지의 지역주민의 관련증언 등을 토대로 주택의 형태와 공간적 특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현장방문 실측 조사는 2000년 9월 ~ 2000년 11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 IV. 본론

### 1. 제주사회의 변화

(그림1)<sup>1)</sup>은 1777~1800년 무렵부터 1995년까지의 제주지역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제주지역의 인구구조는 1900년대 이전만 하여도 10만 이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구 20만으로 급격한 인구의 증가가 있었는데, 한일 합방 이후, 식민지정책의 수단으로 조선총독부가 토지측량을 실시하여, 제주도에서도 1915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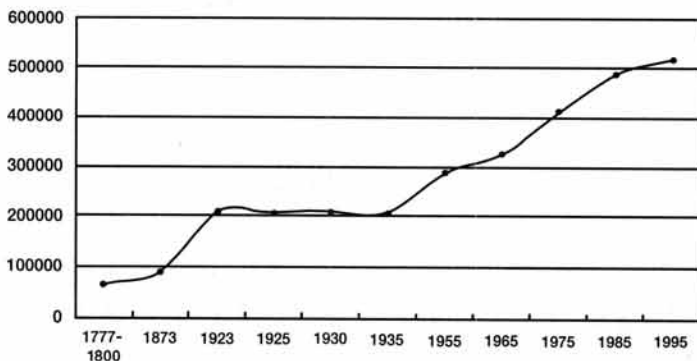


그림1. 제주인구의 변화추이

1) 1777년~1960년의 인구는 우락기(1965), 大韓地誌1 제주도, 대한지리연구소, pp.104~105의 자료를 인용하였고, 1970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에서 인용하였음.

측량이 완료되고 1916년에 토지소유자와 지적도를 고시하였다<sup>2)</sup>. 이후, 조선총독부는 일본인들에게 수산업 혹은 임산물 가공업, 은행업, 전기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어 많은 일본인들이 제주도에 유입되었고, 또한 이와 관련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유입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인구는 1930년대까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인구가 지속되다가, 1950년대에 들어 다시 급격히 증가하다가 1970년 후반부터 다소 증가하게 되는데, 6·25사변에 인한 피난민의 유입, 그리고 지역개발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sup>3)</sup>은 1967~1980년까지의 주택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근대적인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증가가 1960년대부터 이루어져 오다가 1970년대에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표1)1967~1980년의 주택구조변화추이

년도	합계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목조			기타
				합석	기와	초가	
1967	64,460	359	1,998	4,893	24,432	32,778	3,031
1968	65,633	887	959	3,682	4,091	52,014	73
1969	67,152	1,051	1,285	7,853	3,935	51,741	1,287
1970	70,595	1,848	3,139	7,953	4,836	51,819	100
1971	76,120	2,498	5,541	-	5,032	55,578	7,471
1972	75,965	2,950	7,465	-	5,548	53,108	6,894
1973	77,960	3,420	-	22,464	3,845	43,978	4,253
1974	79,606	3,562	-	27,451	3,908	40,435	4,250
1980	77,095	9,134	47,071	2,508	3,044	14,415	923

2) 김봉옥(1987), 제주통사, 제주문화, p.210

3) 1967~1974년까지의 자료는 광복제주 30년, p.134에서 인용하였고, 1980년의 통계자료는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에서 인용하였으며, 이후의 통계조사에서는 주택의 지붕재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는 제주지역의 관광지 개발, 그리고 제주도의 종합개발10개년 계획 등이 추진되는 등, 196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던 근대화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나, 1980년대의 신제주 건설, 대단위 집합주택의 건설, 주택의 고층화하는 등 더욱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있어서 대규모화하여 1970년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1950년대와 1960년대는 해방후의 혼란기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관광개발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1950년대의 주택형태

### 2-1. 난민주택

1950년에 발발한 6·25사변으로 전쟁의 위협이 없었던 제주에 많은 피난민이 유입하였다. 피난민들은 제주항, 성산항, 한림항을 통하여 제주도로 들어와<sup>4)</sup> 각 지역으로 흩어져 피난생활을 시작하였다(그림2).

전쟁이 끝난 후, 피난민을 위한 「난민귀농정착사업」을 1955년부터 시작하여 1959년까지 5년 동안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난민뿐만 아니라, 4·3사건 등으로 인한 난민을 포함하였던



그림2. 제주도로 몰려온 피난민촌의 모습(인용자료 : 제주시정30년사)

4) 도백열전(26)의 기록에 의하면 7월중에 약 1만명의 피난민이 유입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의 제주 인구가 28만명으로 상당한 피난민숫자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1997), 제주실록, p.56를 참조

것으로 추측되는데, 제주도가 계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sup>5)</sup>.

봉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임홍중씨는 난민 주택에는 육지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대부분 거주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난민들의 정착을 위해 우선 주택을 제공하였는데, 지역상황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건축하였다. 이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으나, 현재 봉개동 일대에 일부 남아 있는 주택이 주택 형태와 내부공간을 고려한다면, 도시형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난민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2세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합벽을 중심으로 돌담으로 외부와 경계를 구분한 독특한 형태의 주택이다. 각 세대별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화장실은 외부에 두었다(그림3, 그림4). 또한, 각 세대는 독립된 마당과 우영 밭을 가지고 있는 등 외부 공간은 기본적으로 제주의 주거공간을 답습하면서도 주택내부공간과 지붕형태, 마감재료 등에 있어서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현대적인 주택이었다.



그림3. 1주택2가구형태의 난민주택의 외관 (봉개동 소재,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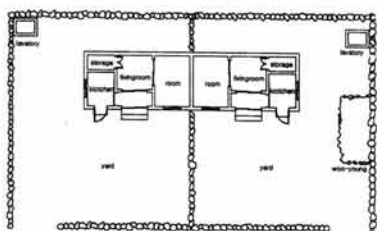


그림4. 난민주택의 평면 (봉개동 소재, 1959)

## 2-2. 후생주택(재건축택)

6·25사변 발발 후,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1953년부터 정부는 본격

5) 제주신보, 1959. 4. 4.일자 신문기사.

적으로 주택의 파괴된 것을 재건하고, 또한 월남한 피난민들이 증가하여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주택건설에 총력을 기울였다. 주택건설을 포함한 전후 복구에는 미국과 UN의 원조가 큰 힘이 되었다. 미국의 원조는 해방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는데, 1945년 해방 이후 실시되었던, 미군정이 끝나고 이승만 정권이 성립되면서, 미국의 원조는 장기적인 원조로 바뀌기 시작하였는데, 전후 복구를 위해 미국의 주도로 원조된 재료들은 콘크리트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이었다.<sup>6)</sup>

그 당시 주택건설은 지금의 행정자치부에 해당하는 사회부가 주관하였는데, UNKRA(United Natio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sup>7)</sup>의 원조를 받아 경인지역을 비롯하여 전국 각도에 후생주택(厚生住宅)을 건설하였는데, 일명 재건주택(再建住宅)이라고도 불리었다. 제주도에서도 몰려온 피난민을 위해 후생주택을 건설하였다.

이와 같은 근대적인 주택의 제공은 당시 집 없이 유랑생활을 하여야 했던 피난민들이나 4·3난민들로서는 새로운 희망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물자난이 심각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주택건설에 따른 잡음도 많았던 것 같다. 그 당시의 신문기사를 보면<sup>8)</sup>, 건축자재는 지방 구호위원회에서 배급하였는데, 피난민에 대한 건축자재 배급에 있어서 2만원의 보증금과 지방유지의 보증을 요구하는 등 피난민들로서는 불가능한 조건이어서 많은 불만이 있었으며, 대부분 유지들이 입주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후생주택을 건축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 입주자<sup>9)</sup>의 증언과도 일치하고 있다.

6) 宋律(1992), 韓國近代建築의 發展過程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教 大學院 博士 論文, p.111

7) 한국의 경제부흥, 재건을 돕기 위해 1950년 12월 유엔총회의 결의로 창설된 원조기관으로 1958년에 해체되었다.

8) 제주신보, 1954. 3. 28일자 신문기사

9) 이성주씨(75세)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후생주택을 건축할 당시, 20년 상환 조건으로 180만원을 지원 받아 건축하였다고 한다.



제주도에 건설된 후생주택은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신문 기사<sup>10)</sup> 등의 기록으로 보아, 원조에 약 20호 정도의 주택이 일정한 부지를 구획하여 집단적으로 건설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제주도에 남아있는 후생주택은 몇 채 되지 않으나, 삼도1동에 남아있는 후생주택의 배치(그림5)를 보면, 제주도의 전통적인 배치방식과 달리, 일정한 토지를 바둑판 모양으로 구획하여, 집단적으로 건축하였다. 부지를 실측한 결과, 1가구가 건설되도록 구획된 부지의 면적은 약간의 차이는 대략 254~275㎡ 정도였다. 건축물의 규모에 있어서는, 대한주택공사의 자료20년사를 보면, 9평 규모가 건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삼도1동에 남아 있는 후생주택(그림6)을 조사한 결과 9평과 18평 2종류가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18평의 평면은 마루를 중심으로 방(3개)과 부엌(1개),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화장실을 주택내부에 두고, 또한 화장실을 거쳐 욕실로 들어가는 상당히 서구식 평면구조를 하고 있다



그림5. 후생주택의 배치도(삼도1동 소재)

10) 제주신보, 1959. 2. 13.일자, 신문기사

는 것이다(그림7). 그러나, 화장실이 재래식이어서 냄새가 나고 제주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평면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sup>11)</sup>. 구조는 흙을 구워 만든 블록<sup>12)</sup>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여 그 위에 회바름으로 마감하였다.



그림6. 후생주택의 외관(삼도1동,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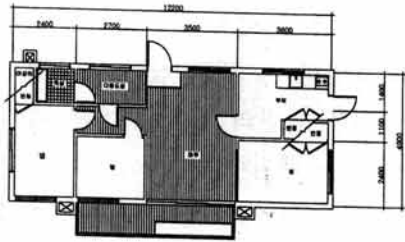


그림7. 후생주택의 평면(18평)

### 3. 1960년대의 주택형태

#### 3-1. 전략촌의 주택

4·3사건 발발 당시, 산사람들에 의하여 습격 받는 일이 잦아지게 되어 마을을 요새화하거나, 이들을 토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산간 마을에 대하여 소개령<sup>13)</sup>을 내려 해변마을로 이주하게 하는 등 주거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산사람들에 대한 토벌이 끝나갈 무렵인 1949년 봄에 들어서 해변마을에 소개하여 있던 주민들에 대한 복구 지로서 소개민을 수용하면서 통제하기 용이하고, 또한 산사람들과의 연계차단 혹은 동조세력의 색출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

11) 후생주택건축 당시부터 생활하고 있는 이성주씨(75세)의 증언

12) 연와조(煉瓦造)라 부르며, 일종의 조적식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주택공사의 자료에 의하며, 그 당시 사용된 흙벽돌은 흙(白土)과 시멘트 혹은 석탄을 혼합 압축하여 제작하였다. (대한주택공사(1979), 대한주택공사 20년사, p.208)

13) 그 당시 소개령이 내려진 후, 백여개의 중산간 마을이 폐허가 되었고, 가옥이 15,000호, 35,000동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제주도(1977), 「제주실록」 p.44와 「4·3은 말한다Ⅱ」, p.365~366 참조

여<sup>14)</sup> 전략촌 혹은 재건마을 으로도 불리웠던 마을을 건설하였다.

전략촌의 크기는 노형동 정촌마을은 220m×210m(그림8), 선흘리 낙성동의 전략촌 흔적지는 140m×110m(그림9)로서 거의 정방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크기는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전략촌은 불탄 집터의 울담이나 밭담을 등짐으로 저 날라 축성하였는데, 성담 밑에 습격을 막기 위하여 폭 1.5m, 깊이 1.8m정도의 도랑을 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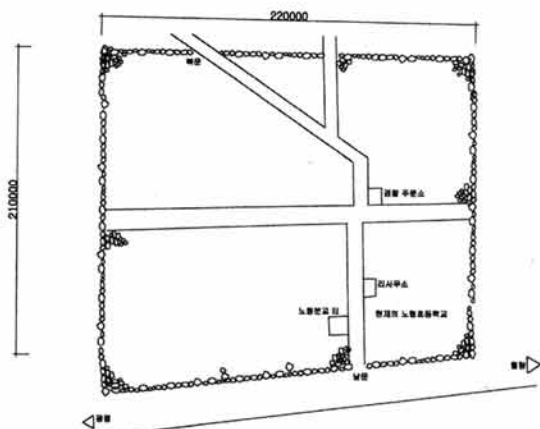


그림8. 노형동에 축조된 전략촌의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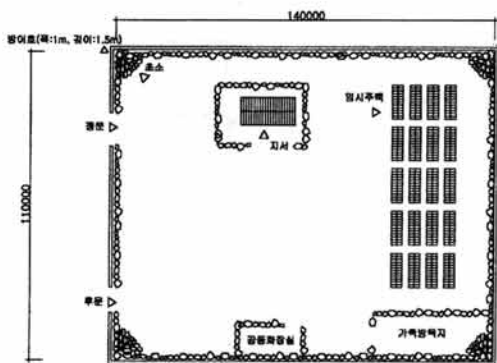


그림9. 선흘리에 축조된 전략촌의 평면

14) 숭실대학교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분단시대」 제주 역사·문화기행, p.36

가시나무, 실거리나무 등으로 둘러쳤다(그림10).

임시주택은 집단주거형식으로 1동당 4세대 형식의 평면구조(그림 11)를 취하고 있고, 임시거처였기 때문에 내부공간은 바닥에 고사리 등을 깔아 놓고, 다른 구석에서 밥을 해먹으면서 살았다고 한다.<sup>15)</sup>

임시거처였기 때문에 나무기둥을 세워 골격을 만든 뒤, 외벽은 돌을 쌓아 구성하고 지붕은 나뭇가지 등을 덮어 간단히 비바람을 막는 정도였다.

### 3-2. 4·3 이재민 복귀주택

4·3사건 그리고 6·25동란이 끝나고도 주민들은 원주지로 복귀하지 못하고 전략촌과 같은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거나 부분적으로 마을에 입주하곤 하다가, 1960년이 들어서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혁명정부도 지역현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4·3사건 해결이었다. 이전까지는 일부 산사람들의 소탕 등의 이유로 원주민 복귀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건축자재의 제공이나 일부개조에 의한 입주형태의 복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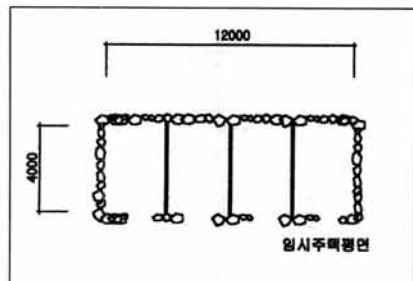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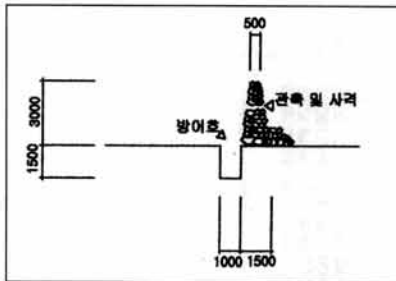


그림10. 선흘리 전략촌의 방호벽 단면      그림11. 선흘리 전략촌의 임시거처의 평면

15) 김형조씨의 증언, (선흘리 1200번지, 1922년생, 4·3당시 27세)

16) 제주신보, 1954. 1. 31.자 기사에 의하면 1954. 1. 28.에 경찰국장의 판단에 의하여 造水理 朱池洞에서 첫 원주지 입주식이 있었다.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주지 복귀 사업」을 실시하여, 1948년 4·3사건으로 인하여 재화를 만난 중산간 지대 산재마을 주민들에게 잃었던 옛 농토에 집을 지어주고 당분간의 생활비까지 지원하여 소개령에 의한 장기간의 물적 심적 피해를 보상하려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호를 건설하였는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의 신문기사<sup>17)</sup>를 토대로 1차 사업에서의 주택 건설지 분포를 작성하여 보았다(그림12), 산북의 중산간 지역에 집중되었다. 2차 사업에서도 800세대 건설의 분배에 있어서도 제주시 190호, 북제주군 320호, 남제주군290호가 배정된 것으로 보아 상당수가 산북 지역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의 지원내용을 보면<sup>18)</sup>, 식량뿐만 아니라, 주택, 개간농지, 가축, 농사자금까지 지원하였는데, 주택의 경우는 1호당 25,000원(제2차 사업에서는 40,000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당시 도민 1인당 소득이 30,658원(1965년 기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을 두고 「한라산 횡단도로 포장공사」와 더불어 혁명정부가 보여준 2대 영단이라고 까지 표현하였으며<sup>19)</sup> 한경면 저지



그림12. 4·3 원주민 복귀주택의 건설지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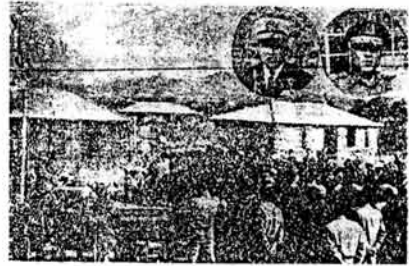


그림13. 한경면 저지리에서 거행된 첫 입주식 광경

17) 제주신보 1962. 6. 10. 및 1963. 1. 18.

18) 제주도(1963), 제주도 제9호, pp.57~58

19) 제주도 행정간행물 「제주도」의 자료에 의하면, 이재민중 원주지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4365세대(총 18,000명)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복귀 2개년 계획을

리에서 가진 첫 입주식(그림13)<sup>20)</sup>에는 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요직들이 참석하는 등, 주민의 지지와 협조,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하여야 했던 혁명정부차원에서는 제주지역의 큰 아픔으로 남아 있던 4·3사건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 하였던 점이 엿보인다.

당시 신문에 게재된 입주식 사진의 주택형태와 비교해 볼 때, 봉개동 등 일부지역의 4·3 이재민 복귀주택은 거의 원형으로 판단되는데, 외부는 제주의 현무암으로 벽을 쌓고 목구조 양식의 트러스에 함석지붕이었으나, 현재는 함석 지붕 위에 스테이트 지붕으로 개량되어 있으며, 내부 공간구성은 마루를 중심으로 방과 부엌이 놓아 기본적으로 제주 전통주거형식인 초가의 평면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택의 규모는 보통 9~12평으로 되어있다(그림14, 그림15).



그림14. 4·3 원주민 복귀주택의 외관(봉개동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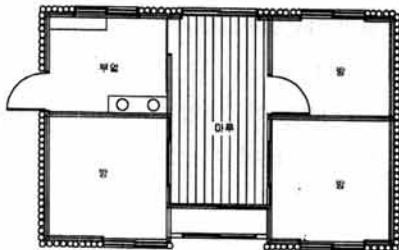


그림15. 4·3 원주민 복귀주택의 평면

### 3-3. 삼안식(三安式)주택

공공기관에 의한 주택공급 이외에 개인에 의한 주택이 건축되기도

수립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1962년 9월에 남원면 하례리에서 복귀주택 기공식을 올렸고, 이어서 1963년도에는 우선 제1차 사업으로서 800호의 복귀를 보게되었다. 제2차사업은 816호로 4월 3일 조천면 와흘리에서 제2차 복귀주택 기공식을 가졌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1963), 제주도 제9호, pp.57~58를 참조.

20) 제주신보 1962. 11. 13.당시의 기사에 의하면, 정부주도 아래 진행되었던 「원주민 복귀사업」에 의한 역사적인 첫 입주식은 1962. 11. 11.에 한경면 저지

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당시 제주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던 J.P 맥그린치 신부(이시돌성당)에 의하여 건축되었던 삼안식주택이다. 삼안식주택은 이시도레<sup>21)</sup>식 주택이라고도 불리워졌는데, 건설된 주택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으며, 현재 이시돌 목장에 몇 호 남아있다.

(그림16)는 1970년 10월 15일 이시돌 목장에서 거행된 이시돌 농업기수연구원 및 차량종합지원정비공장 낙성식의 장면으로, 사진의 뒤쪽으로 공장으로 추측되는 삼안식 건축물이 보이는데, 그 당시 새로운 건축물로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위쪽 사진은 낙성테이프를 끊는 장면으로 왼쪽에서 네 번째가 J.P 맥그린치 신부이다.

삼안식 주택의 구조는 물결모양의 아치가 연속된 형태의 셸 지붕으로, 내부에 기둥이 없어 넓은 평면을 구성할 수 있어서 주택뿐 만 아니라, 군용 막사, 교회 등에 사용되었다(그림17).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1962년에 저렴한 주택의 대량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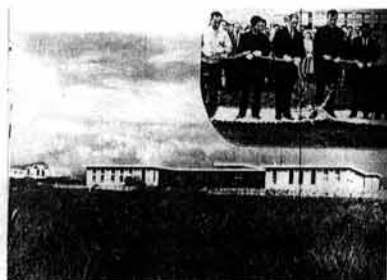


그림 16 이시돌 농업기수연구원  
및 차량종합지원정비공장  
낙성식의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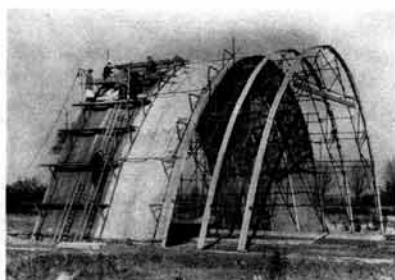


그림17. 삼안식 구조물의 설비장면

리 명이동(12호 건립)에서 가졌다.

- 21) 이시돌이라는 語義는 스페인의 성직자인 Isidore(1110~1170)로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가난한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의 노동력이 3인분에 해당함으로서 모두가 天佑神助라 하였다고 한다. 이를 교회에서 성인으로 추대하여 농부의 수호성도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락기(1965), 大韓地誌1 제주도, 한국지리연구소, p.287

을 위하여 건축자재의 규격화 방안과 조립식주택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삼안식 주택(B형 주택으로 명칭)이었다(그림18). 그러나, 삼안식 주택은 각재 및 평철을 기본구조로 하였으며, 합판대신 삼베나 가마니 등으로 거푸집을 만들어 구조체를 제작하기 때문에 공법이 간단하고 특수기능공이 필요 없고 목재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 단열이 되지 않으며 곡면으로 인하여 창문 위치가 제한되어 채광과 환기면적이 적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도입 개발되지 못하였다.<sup>22)</sup>

현재 이시들에 남아 있는 남아 있는 삼안식 주택의 평면구조를 보면, 1세대용 주택과 2세대용 주택, 2종류가 건축된 것으로 보이며, 대한주택공사 20년사의 자료를 보면 건축물의 측면 즉 단변 방향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이시돌 목장에 남아 있는 텍스트하우스의 외관과 평면을 보면 건축물의 장변 방향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어 여건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그림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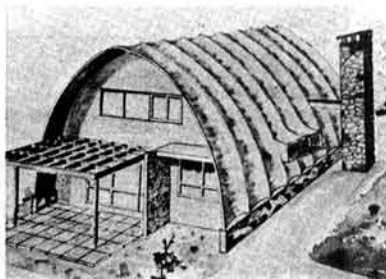


그림18. 주택공사가 검토하였던 삼안식주택



그림19. 1세대용 삼안식주택 외관 (이시돌 소재)

1세대용 주택은 방 3개와 부엌이 있고 현관 홀을 중심으로 각 방에 직접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그림20). 2세대용 주택은 방 1개와 부엌, 그리고 거실 겸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면구조로 되어 있다(그림21).

22) 대한주택공사(1979), 대한주택공사 20년사, p.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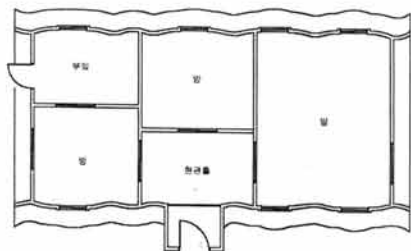


그림 20. 1세대용 삼안식주택의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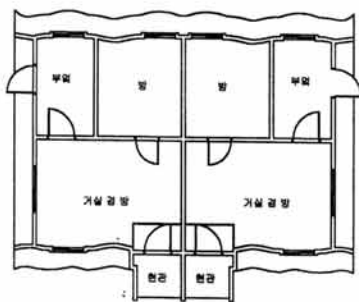


그림 21. 2세대용 삼안식주택 평면

## V. 결론

1950년대와 1960년대 사회의 모습과 주택에 대한 기록이나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미약하나마 50년대와 60년대의 사회변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주택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따른 주택형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자료로서의 가치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조사연구의 정리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혼란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근대화로 이행해 가는 변혁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제주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잊혀진 시간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다. 6·25사변이라는 민족적 비극으로 수많은 피난민이 제주로 몰려오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주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정책이 추진되었고, 미약하나 4·3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였던 것 같다. 난민정착사업에 의한 난민주택과 후생주택, 그리고 4·3원주민복귀주택이 그에 해당되며, 당시로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수단으로서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주택으로서 공급되지 않았던 삼안식 주택

이 개발과 개간의 목적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이시돌을 중심으로 건설되어 활용되었다. 그 배경에는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할 수 있다는 장점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근대식 주택이라는 인식,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당시의 제주지역 주택사정과 잘 결합되었던 것 같다.

이 시기의 주택들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주택이었으며, 주택의 형태와 재료들은 현대적인 주택이었으나, 평면구조를 보면 나름대로 제주의 실정에 맞게 건축된 점은 평가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주택들은 자의적인 요구에 의하여 건설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필요성에 의하여 건축된 것들이었으며, 특히 일부 주택에서는 현무암 등 지역의 건축재료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제주지역의 문화와 기후 등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이에 대한 검토과정이 없이 건축된 것이었다. 이후,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발로 이어져 제주 독특한 주거문화가 상실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들 주택에 대한 다양한 자료수집과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당시의 관보를 중심으로 한 자료의 검토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주택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존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만길(1984),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김봉옥(1987), 제주통사, 제주문화  
 광복제주 30년  
 노형초등학교 후원회(1998), 노형교육50년사  
 대한주택공사(1979), 대한주택공사20년사

- 변승규(1992), 제주도략사, 제주문화  
 제주도(1997), 제주실록  
 제주신보, 1954. 1. 31.  
 제주신보, 1954. 3. 28.  
 제주신보, 1955. 2. 18.  
 제주신보, 1959. 2. 13.  
 제주신보, 1959. 4. 4.  
 제주신보, 1962. 6. 10.  
 제주신보, 1962. 11. 13.  
 제주신보 1963. 1. 18.  
 제주도(1963) 제주도 제9호  
 제주도(1970) 제주도 제46호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1953.  
 송울(1992), 韓國近代建築의 發展過程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教 大學院  
 博士論文  
 승실대학교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분단시대」, 제주역사·문화기행  
 우락기(1965), 大韓地誌1 제주도, 대한지리연구소  
 응진출판편집부(1998), 응진학습백과사전 11, 응진출판

#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Housings by Social Changing of Jeju

-With Housings of 1950s and 1960s-

Kim Taeil · Kim Hosun · Park chelmin

## Abstracts

Housings are very related with society and culture and human living. Without exception, housing in jeju has been changed by natura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Development in Jeju was started on May 1961 and era of 1950s and 1960s was period of confusion and same time period toward modernization. In this during of social confusion and modernization, various house were built in Jeju.

But unfortunately study with regards to house of 1950s and 1960s has not been proceeded and also its data were not enough to study.

This study is based to analyze house type and spacial trait with social change during 1950s and 1960s.

This study, for searching what kinds of house were built and what's trait, depended on basic data like 「Jeju-do」 published by Jeju Province, newspaper's articles and Korean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And also measured the existing houses and heard more exact explanation from the resident.

Although roof type and wall material ware modernized, most of housings seems to be built on traditional housings plan of Jeju. It is necessary for more exact study to get more data. And also it is proposed that existing housings are preserved.

Key words : Housing, social changing, modernization, 4·3 matter, sufferer, return-supporting house